

트럼프·푸틴·시진핑·이시바가 머리 맞댄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고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북한까지 참전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고 있다. 중동의 불안과 포화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국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가하는 변칙적인 압박 전술을 구사하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중국은 다시 일어서고 있다. 네이처 선정 과학 분야 세계 10대 대학 2~9위가 모두 중국 대학이다. 추론 AI ‘딥시크’는 세계를 뒤흔들었다. 중국의 굴기는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을 통해 이념 전쟁은 냉전 시대를 끝으로

자유민주주의 승리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 정세는 분열과 갈등이 ‘종말’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 되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나라에서 국내 정치의 분열과 국제 사회의 충돌을 동시에 겪고 있다. 안팎으로 새로운 힘으로 태동하고 작용하며 이합집산해 또 다른 권력의 파도가 형성된다.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큰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는 집안싸움을 하고 있다. 침략을 당해 국토가 유린된 아픈 역사에서 어김없이 나타났던 전조 현상이다.

바로 이럴 때 우리 내부의 약한 고리부터 적대적인외세가 개입하면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보아왔던 수순이다. 휴민트(인간 정보)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심리전 형태로 선거까지 개입하는 하이브리드전이 세계적으로도 목격된다. 지난 70년간 우리가 한미 동맹의 바탕 위에 평화를 누리며 ‘번영’과 ‘행복’을 위해 땀 흘렸다면 이제 다시 ‘생존’을 걱정하는 시대

로 접어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올가을 개최될 2025 APEC 정상회의는 향후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늠할 시험대다. 트럼프, 푸틴, 시진핑, 이시바 등 한태평양 21국 정상들이 경주에 모이는 상황은 우리에게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이기 때문이다. 자유무역과 다자간 협력의 틀이 흔들리고 반도체·방위산업 등 경제가 국가 안보와 연결되고 있는 환경에서 우리는 APEC 의장국으로서 어떤 경제 질서를 주장하고 설득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필자는 통일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서 열릴 2025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를 통해 김정은을 초청해서 한반도 문제의 큰 진전을 도모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에게도 제안한 바 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의제를 제안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살릴 탁월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아울러 ‘지붕 없는 박물관’인 경주에서 한국 문화의 정수를 보여줄 수 있도록 국가와 민간의 대담한 투자가 필요하다.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음악가, 미술가, 영화인 등도 참여해 주기 바란다. 한류 문화는 5000년 역사 위에 지난 70년의 번영과 자유의 확장을 통해 우리가 창조한 무기다. 하드 파워(군사·경제력)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는 소프트 파워(설득력)로써 국가 생존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

일론 머스크 등 글로벌 기업 CEO들까지 참석하기 때문에 한국의 놀라운 성취와 아름다운 문화를 제대로 선보인다면 국격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열어갈 수도 있다. 다시 도래하고 있는 ‘생존의 시대’에 대한민국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 성장과 한류 확산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도록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에 국민 모두의 관심과 역량을 모아야 한다.



경주시는 APEC 기념 명예도로명 지정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보문호 9km 구간도. <경주시 제공>

보문호 일대 명예도로명 ‘APEC로’ 지정 예정

실제 주소로는 활용 안해

경주시가 오는 10월 말 열리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기념해 ‘APEC로’라는 명예도로명 지정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 21개국 정상이 모이는 이번 국제회의 개최지를 상징함과 동시에, 경주의 도시 브랜드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경주시는 17일 APEC 정상회의가 열릴 화백컨벤션센터(HICO) 인근 보문호 일대 구간을 (가칭)APEC로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PEC로는 보문교삼거리를 시작으로 보문호수를 따라 원점을 순환하는 9km 구간이며, 기존 법정도로명인 보문로(전 구간)와 경감로(일부)를 포함한다. 오는 28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마친

뒤 명예도로명 확정 절차를 거쳐, 도로 표지판과 안내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명예도로명이기 때문에 기존 도로명과 함께 사용되지만 실제 주소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도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세계 정상들이 방문하는 만큼, 명예도로명을 통해 회의 개최지로서의 상징성을 뚜렷이 남기고, 앞으로의 국제 행사 유치와 교류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로 명예도로명 지정은 경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문화 교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의 글로벌 도시 브랜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BS-경북도, APEC 축제 분위기 조성 협약



[김도훈 기자] 2025-02-17 19:47

KBS 한국방송과 **경상북도**·경주시가 오는 10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국가 기간방송사로서 APEC 정상회의 주요 행사를 중계·보도하는 등 범국민적인 인지도 확산에 나섭니다.

또 세 기관은 APEC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동 캠페인과 특별 홍보기간을 운영하는 등 협력할 계획입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경북도 “APEC 고위관리회의, AI 기기가 언어장벽 해소“

[류상현]

AI기반 종합안내서비스 기기 시연



[안동=뉴스시스] 18일 **경북도** 간부회의에서 APEC 2025 고위관리회의(SOM1)에 배치될 AI 기반 종합 안내 서비스 기기 시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2025.0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스시스] 류상현 기자 = 2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고위관리회의(SOM1)에서 AI 통번역 기기들이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경북도는 18일 간부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고위관리회의(SOM1)에 배치될 AI 기반 종합 안내 서비스 기기 시연을 했다.

경북도는 이 회의에서 21개 회원국 참가자들이 각국의 다양한 언어를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AI 기반 종합 안내 서비스 기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날 시연회에서 선보인 기기는 AI 휴먼 아바타가 탑재된 실시간 답변 서비스 키오스크(E사 개발)와 실시간 대화형 AI 다국어 통번역 솔루션(P사)이다.

서비스 기기에는 회의장 구조, 편의시설, 이벤트 안내뿐 아니라 경주의 주요 관광지, 문화유산, 식당, 교통정보 등을 학습시켜 대표단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결해 준다.

두 기종 모두 APEC 21개 모든 회원국의 언어 지원이 가능하다.

E사의 키오스크는 사용자의 발화 언어를 자동으로 인식해 AI 휴먼이 해당 언어로 답변하는 것이 특징으로, 주 회의장인 하이코의 관광·수송 안내데스크에 배치될 예정이다.

P사의 통번역 솔루션은 대형 투명패널을 통해 실제 안내원과의 대화가 가능하다. 패널에서 나오는 질문자의 모국어 텍스트를 통해 본인의 의도대로 질문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북도**는 이를 하이코뿐 아니라 김해공항, 경주역, 호텔 안내데스크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시연회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는 "SOM1에서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이 언어의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대표단들이 언어 소통으로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번 시연회에서는 빠졌지만 L사의 이동형 안내 로봇도 배치해 대표단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한 말레이 대사과 APEC 성공 협력 논의

[이승형]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

[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8일 도청을 방문한 모하메드 잠루니 빈 카리드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와 만나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지사는 "말레이시아는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APEC 의장국으로서 성공적인 회의를 개최한 경험이 있다"며 "이러한 경험은 국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경북도**에 큰 본보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 "말레이시아와 경제, 관광, 통상,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며 "양국이 APEC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가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사 일행은 이 지사와 면담을 마친 후 경주로 이동해 호텔과 회의장 등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문화유적지를 둘러봤다.

또 주낙영 경주시장과 만나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설명 듣고 상호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주 시장은 "경주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현대적인 시설을 결합해 세계 정상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청 방문한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 일행

[**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aru@yna.co.kr

관련기사 바로가기

